

제주서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도, 6개 보건소·9개 요양병원으로 백신 수송 만65세 미만 도민 대상 1차 접종 진행 예정

제주에서도 26일부터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3900명분이 25일 제주에 도착함에 따라 26일부터 65세 미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착한 백신은 우선 도내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1차 접종 후 8주 후 2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이후가 돼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병에 10명의 접종분이 들어있는 만큼 1호 접종 대상자는 특정하지 않고 10명 단위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5일 오전 5시 40분쯤 씨월드고속채널 소속 크루즈형 카페리 '퀵제너비어' 호에 실려 제주항 4부두에 도착했다.

1톤 트럭에 실려 제주에 도착한

백신은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 경비팀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 제주 보건소 등 도내 6개 보건소와 9개 요양병원으로 수송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분 도착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보관

상황을 점검한 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주도정에서도 백신 보관과 접종과정, 백신 관리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도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 운송이나 관리지점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정직하게 공개하고, 추후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제주보건소 관계자들이 제주항을 통해 도착한 도민 접종용 코로나19 백신을 약품보관실로 옮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지방병무청장에 제주출신 문경중 서기관

신임 제주지방병무청장에 제주 출신 문경중(57·사진) 서기관이 임명됐다. 제주지방병무청은 25일자로 문경중 신임 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문 청장은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병무청에서의 보직을 보면 공직자 등 병적관



리 추진단, 병무청 기획조정관실, 병무청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박희철 전 청장은 병무민원 상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은범기자

지역화폐 '탐나는전' 불법환전 6건 적발 도·자치경찰단 합동 단속 통해 불법행위 확인

제주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7~22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2건 등은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불법사례로 가맹점주의 지인·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해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

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현금 강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기자

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청명·한식일(4월 4일~5일) 기간 동안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60구에서 90구로 확대해 예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인터넷(www.ehaneul.go.kr)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강대혜기자

식당 직원 확진에 진단검사 수백명 몰려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김영미재첩해장국 관련 지난 24일 하루 397명 검사 도내 고교 기숙사 입소 대상자 전수검사도 진행 중

순찰차 감금·협박성 발언 영상 '논란' 경찰 "자발적인 탐승... 해당 발언은 부적절"

제주에서 경찰이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해명해 나갔다.

지난 23일 '경찰한테 감금 당했어요(제주도 연동)'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20대로 보이는 유튜브가 경찰 순찰차 뒷 좌석에 혼자 탄 상태로 "왜 감금하냐" 등 밖에 있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 바로 다음에 올려진 영상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해당 유튜브에게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4개의 조회수는 90만건이 넘는 상태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할 말이나", "수준미달 경찰" 등의 비난으로 도배됐다.

아울러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도 200건이 넘는 항의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은 25일 해명 브리핑을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5시 3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유튜브가 허락 없이 자신들을 찍고 있다는 여성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경찰 해명은 "이제는 당시 해당 유튜브는 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했고,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탑승했다는 것이다. 또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과격하고 잘못된 언행'이라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외에도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감귤 상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국내개발 우수한 [신상품]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하트메감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시점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남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남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하트메감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홍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에(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날, 금굴,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및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종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선풍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